



누가복음 24:13~35

말씀을 깨우치신 부활의 주님

하나님 찬양하기

주님께 영광 (새 165, E♭→D)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경배와 찬양, D)

Focus |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 열기 🌿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영국 해협을 수영해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 플로렌스 채드윅은 1952년 7월 4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타리나섬까지 35km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먹지도 쉬지도 않고 16시간 가까이 수영해야 하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체력은 물론이고 뱃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고독 등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5시간가량 수영했을 때 채드윅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km도 채 남지 않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녀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지만, 결국 채드윅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채드윅이 완주를 눈앞에 두고 포기한 이유는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힘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달 후 재도전할 때도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채드윅은 안개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해안을 향해 험하게 헤엄쳤고, 결국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채드윅은 말했습니다. “나는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중요한 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보고 싶지만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누가복음 24:13~35를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클레오파스, 18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 언급된 ‘마리아의 남편(요 19:25)’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 당하고 있는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모든 세력을 밟아래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절망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도 부활할 거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빈 무덤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 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현세적인 영광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마 20:2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9:26; 21:27)을 얻은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25~26절)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만 묵상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7절)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21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슬픔에 가려 좀처럼 생각나지 않았습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25~26절). 이전에 했던 말씀과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 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내가 기억할 주님의 약속과 다시 붙들 소망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은 바다에 내린 닻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듯이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확신하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해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는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관찰과 묵상 2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27, 32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쓰인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그리고 '모든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를 제외한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모든 곳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내용과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곁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제자들은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날이 저물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제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두 제자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던 제자들을 깨운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동행할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적용과 나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無所不在,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하시는 속성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한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합니다. 세상은 모든 길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만이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

과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롬 12:1~2).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필경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바른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다지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기쁜 소식, 복음)이 담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써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참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제 영의 눈을 밝히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이슬람교도는 매년 한 달가량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단식하는 라마단 기간을 지킵니다. 이들이 거짓신화에 서 벗어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기도합니다.
2. 인도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과 죄를 버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눅 24:26



에스라 4:1~10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내 주여 뜻대로 (새 549, E♭→D) 신실하게 진실하게 (경배와 찬양, D)

Focus |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뒷자리에서 몰래 책을 펴 놓고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학생이 보게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논의되다가 결국 학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귀한 전통을 깨는 일이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한 번 봐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커닝한 학생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새벽까지 일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며 도와주지 못한 게 책임이 큼니다." 이 학생의 말에 모두 숙연해졌고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습니다.

어느 그룹이든 '전통과 순수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연합(Unity)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항상 존재합니다. 두 부류는 기차길의 레일과 같이 평행선을 그립니다. 둘 중 어떤 것도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연합이나 순수성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순수성과 연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에스라 4:1~1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북 이스라엘 멸망 후 앗수르 왕에 살았던 이주 정책과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다른 민족과 더불어 이방 신과 우상이 들어오면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잃고, 선민으로서 정체성도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남 유다 멸망 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고레스왕의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에 따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며,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재건할 것은 성전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성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듯한 성전 재건 공사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적들의 훼방을 받습니다. 성경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해 혈통적 순수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환 공동체를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귀환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이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어떻게 답변했나요?(1~3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성전 건축을 함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설 1차 귀환자는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소 업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의 자손들이 함께했습니다. 귀환 후 7월 1일부터 번제를 드렸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공급받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재건 공사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세우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겁을 주며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하고, 행정이나 사법 영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부패한 관리들을 통해 훼방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득권을 쥐기 위해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며, 그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말씀에 기초해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대적이 됩니다.

적용과 나눔 나를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개인 또는 그룹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기득권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차지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이 나쁜 것은 그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까지 탐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욕심과 탐욕을 동반하기 때문에 악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1~4계명),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모든 탐욕과 욕심을 경계(6~10계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모두 탐욕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죄들이며, 이 죄들은 고구마줄기같이 모두 연결됩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익 집단이 되고, 이익 집단은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이익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항상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며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2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4~10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 계획을 막았습니다. 아하수에로왕이 즉위하자 글을 올려 고발했고, 아닥사스다왕 때도 글을 올려 고발했습니다.

해설 아닥사스다왕에게 상소를 올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상소문이 아람어로 쓰인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와 민족이 함께 고발합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는 만큼 지역 안정감이 중요한데, 이 지역은 분쟁이 많고 시끄러운 지역으로 왕에게 인식됩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15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회복과 성전 재건 공사를 왕과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왕에게 보고되면서 성전 재건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4장 6~23절을 성전 재건 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의 사건을 삽입한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방해와 성벽 건축 방해 모두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 재건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두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고자 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주전 536년 시작되어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 바사(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에 재개됩니다. 대적들이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 뜻에 순종해 진행하는 일이 갑자기 중단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받거나 일이 중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일에도 반대와 방해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 같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하나님 일에도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방해가 모두 존재합니다. 성도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포로

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고,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 다지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하고 흩어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잡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대적들의 방해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부정부패와 한탕주의가 사라지고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최근 미국에서 8개 도시 순회 집회(God Loves You)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스 4:5



요한복음 13:3~15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기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새 462, G)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경배와 찬양, A♭~G)

Focus |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부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버드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라는 사람이 기부해 대학을 세웠기에 하버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스탠퍼드대학도 스탠퍼드라는 사람의 기부로 대학을 세울 수 있었기에 스탠퍼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보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몸에 힘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로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 인격에 감동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되고, 남을 높이고 대접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대접받을 것이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진실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 김용택, 『관계의 지혜』(두란노)

나를 위해 작은 섬김이나 배려를 베푼 사람을 보며 감동했던 경험이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요한복음 13:3~15를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3~17장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최후의 식사(13장), 고별 설교(14~16장), 대제사장적 기도(17장)로 구성됩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성찬식 이야기가 기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기사를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1절).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먼저로 가득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서열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가르침을 몸소 보여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먼지로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집에 들어갈 때 하인이 그의 발을 씻기거나,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발을 씻지 못한 상태로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낮아져 섬겨야 함을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며 본이 되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은 식사 중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3~5절)

예수님은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해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으셨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기대어 누운 자세로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으셨는데, 본문에서 '벗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에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또한 '허리에 두르다'라는 헬라어 역시 섬기는 종의 적극적인 섬김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려 합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길 원하셨기에, 겹옷을 벗고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성공보다 섬김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적용과 나눔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 겸손히 행할 섬김은 무엇일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영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861년에 감리 교회의 목사 자리를 사임하고, 1865년 런던 동부

에 있는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겔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역은 섬김의 본이 되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국 사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신앙 운동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며, 제자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의 섬김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력해 보이는 작은 섬김이라 해도 세상을 바꾸어 나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찰과묵상 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6~8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발은 신체 가운데 쉽게 더러워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발을 씻기도록 스승에게 먼저 가득한 발을 내미는 행위는 수치스럽고 민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한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상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로스’는 유산이나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은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씻어 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비로소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적용과나눔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품기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적용과나눔 포인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며 사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발을 씻기는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죄책감으로 단절된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내어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

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 주어야 할 지체는 우리와 친한 사람뿐 아니라, 가까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지체까지 포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다지기 세족 기사는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며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 주는 것까지 제자 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치부를 사랑으로 씻어 주는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닮아 서로 발을 닦아 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하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가르침을 따라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통로로 여기고, 세계 복음화에 더욱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2. 니카라과는 오랜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니카라과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에스라 9:1~15

회개할 때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 찬양하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 453, A~G)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경배와 찬양, A~G)

Focus |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설교하는데, 9살쯤 되는 남자 아이가 부들 부들 떨고 울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악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9살 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참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고백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계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의지로 일어날 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정으로 돌을 깨부수는 것처럼, 우리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구조적인 악까지 고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 일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라 9:1~15를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기는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 78년 정도가 지난 시기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과의 구분이 희미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과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외적 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희미해진 민족 간의 경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규율 등 내적 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귀환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는 이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스라에게 찾아와 이 문제를 보고합니다.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출 34:11~16; 신 7:4). 단,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타민족과의 결혼, 그리고 타종교인과의 결혼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 라합, 아비가일, 십보라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입니다. 율법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방 민족, 특히 가나안의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1절). 느헤미야와 말라키 역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연관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느 13:26; 말 2:11),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할 만큼 당대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공동체 지도자(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1~2절)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배교하는 가증한 일을 행해 거룩한 자손을 번질시켰고, 이 일에 지도자(방백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설 하나님은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인도하시고 외적인 복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율법 학자 에스라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귀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간에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시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공동체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자칫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도 반대하는 일입니다. 지난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음을 백성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와 복음의 본질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구별되고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외의 것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적용과 나눔 내 삶에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이스라엘의 귀향민들과 다른 민족 간의 교류는 결혼 관계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를 따라가거나 신앙이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

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의 괴리감을 경험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세상과 타협해 적당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다가, 결국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양심을 외면하게 만들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질시킵니다. 나아가 그것은 자칫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행 17:11). 그들이 고민한 것같이 우리도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2 방백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3~15절)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해설 에스라의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음에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국가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두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취해야 할 태도는 에스라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앞에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진심 어린 기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로서 내가 죄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에스라가 보여 준 모습처럼 우리 또한 현실 속에 놓인 죄의 문제와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죄의 결과와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었던 죄의 문제까지 기적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

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성도는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죄는 우리를 뿌리까지 뒤흔들 것입니다. 설령 우리 중 누군가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된 공동체의 영향력은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떠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 죄 가운데 넘어진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 있는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연합해 부활의 주님을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고, 북한 주민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되도록 기도합니다.
2. 독재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극소수의 현지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열매를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스 9:5~6



말라기 2:17~3:6

회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찬양하기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새 320, A) 나의 영혼이 잠잠히 (경배와 찬양, A)

Focus |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고통 받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영국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는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나비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월리스는 고통스러워하는 나비의 몸짓을 보는 순간, '내가 이 나비를 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로 고치의 옆 부분을 살짝 그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나비가 고치를 빠져나오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나비는 거친 고치를 뚫는 고통을 견뎌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보이지 않는, 변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모든 시련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인생을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 강준민,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두란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말라기 2:17~3:6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말라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종교 예식이 자리 잡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라기는 여섯 가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와 이스라엘과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논쟁(1:2~5), 제사장들의 태만과 죄에 대한 논쟁(1:6~2:9),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에 대한 논쟁(2:10~16),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2:17~3:5), 진정한 회개에 대한 논쟁(3:6~12),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 대한 논쟁(3:13~4:3), 그리고 결론(4:4~6)입니다. 하나님은 각

논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과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언약을 확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해소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과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악인이 번영하는 듯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백성의 말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2:17~3:1)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보내 그분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고,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 곧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식이 재개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행악자들로 인해 고통 당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순된 현실 한 가운데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절).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나오며, 주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언된 대로(사 55, 61장; 렘 31장; 겔 16, 37장) 주님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시대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옷을 나누어 사회적 약자들을 돕게 하고, 세리에게는 적법한 세금을 걷을 것과 군인에게는 강탈과 거짓 고발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눅 3:7~14). 예수님은 본문의 예언대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15~19).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육신을 허물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고 우리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말라기서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공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의를 탐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부패를 싹 틔우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구약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타락, 죄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여호와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에 유일한 해결책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관찰과 묵상 2 여호와와 그의 날에 그분 앞에서 회복된 레위인, 유다와 예루살렘, 아굽 자손(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3~6절)

레위 자손은 금과 은같이 깨끗해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리는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며, 아굽의 자손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설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와 그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입니다(2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그의 날이 그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자 소망의 날이며,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앗아 계신 자로 묘사되는데(3절), 이는 친히 재판자이자 통치자로 나서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는 제사드리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십니다(3절). 그들을 통하여 올바른 종류의 제물이 드려지고 올바른 예배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4절). 그날에 하나님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삷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5절). 이 일곱 가지 죄는 말라기 시대에 언약 백성과 하나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 아굽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6절).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적용과 나눔 내 삶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히 10:19).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공유한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는 이전의 죄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일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우울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은 우울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려는 노력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말씀 다지기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놀라운 구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공의와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삶의 전 영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반복되는 죄를 떠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언약하여 죄로 인해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낙태율, 자살률이 1위입니다. 온 국민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에서 돌아키도록 기도합니다.
2.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의 기근이 심각합니다.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넉넉히 공급되도록 기도합니다(「생명의 삶」 177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 3:3